

막오른 재보선... 여야, 표심잡기 경쟁 본격화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남·울릉 2곳 후보등록 與 “지역 일꾼 뽑는 선거... 겸손하게 치르겠다” 野 “부패원조 공천... 역사를 10년 뒤로 돌린 것”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에서 치러지는 10·30 국회의원 재·보선의 선거일이 10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여야 후보들은 지역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심잡기를 본격화했으며, 중앙당도 자당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서는 등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화성갑에서는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오후 1시54분께 가장 먼저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등록을 했다.
화성의 새 정치인임을 내세운 홍 후보는 “이번 선거는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은 새 정치인을 염원하는데 여당은 낙하산 정치인을 후보로 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오일룡 후보가

오후 2시4분께 후보등록을 마쳤다.
오 후보는 “지난 총선에 낙선한 뒤 시민과 호흡하며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해 왔다”며 “한 번 한 분 만나고 실례해 가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겨 보아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이날 오후 3시6분께 후보등록 관련 서류를 화성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연바지에 빨간색 새누리당 점퍼를 입은 서 후보는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다면 현 정부가 순항하고 여야가 원만하게 대화하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모든 경합을 쏟아 내후원 화성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박명재, 민주당 허대만,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도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후보들간 경쟁뿐 아니라 중앙당 차원의 고공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재·보선은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면서 “우리 후보의 장점을 잘 알리고 심판받는 조율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재·보선의 의미를 ‘부패정치 청산’에 맞춘 뒤 서 후보를 겨냥, “차떼기의 원조, 원조부패라고 불리는 분을 공천한 것 아니다. 지난 10년의 역사를 뒤로 돌린 것”이라고 비

난했다. 특히 서 후보가 ‘낭만주의 정치의 막내’라고 표현되는 데 대해 “낭만주의라는 것은 구성치로, 지금 국민정서와는 안 맞다”면서 “우리 당 후보는 지역사회에서 말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라며 강조했다.
이날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다. 부재자신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다.
재보선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25~26일 이틀간이다.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黃金 “잘해봅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정쟁 그만” 제안 NLL대화록 출구 찾기

문재인 “죄 없는 실무자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등 권력기관 개혁, 4대강 사업·원전비리·자원의고 등 권력형 비리 규명, 기소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와 부자감세 철폐 촉구, 경제민주화 실현,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 등의 5대 이슈를 중점 관찰하기로 했다.
한달 반 만에 국회에 복귀한 김한길 대표가 이날 일선으로 ‘비판적 대안자’를 화두로 던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민생·복지공약 후퇴를 야무지게 바로잡는 동시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적 비판자’로서 위상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도 친노(친노무현)계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기문란 사건의 혐의

자들로서 검찰 수사 중에 지속은커녕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사초 폐기에 대해 노무현재단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은 당의 분명한 입장을, 문 의원은 어떤 책임을 질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최근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은 재밌주기 수사의 틀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대강 공사 이전 자연환경으로 복원하자” 안철수 ‘범야권 연대기구’ 합류할까

홍영표·심상정 ‘특별법안’ 발의

4대강 공사 이전의 상태로 자연환경을 복원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

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약탈, 농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질, 구조물 안정성, 주민 피해, 홍수, 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구역의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4대강 사업 대상 하천의 자연환경을 공사 이전 상태로 복원하자는 취지의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과 1년 안에 정부가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및 문화재 복원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4대강 복원 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주민 요구를 수렴하며 4대강과 주변 문화재 복원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사실조사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된 예비타당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정확성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생태계와 문화재 파괴 현황도 조사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대표 제안 수용여부 관심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장외투쟁 동력 강화를 위해 제안한 ‘범야권 연대체’에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국정원 개혁과 회를 설치해 지역 주민 요구를 수렴하며 ‘전국적 연대기구’ 설치를 공개 제안했다.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범야권의 세 세력을 연대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이었다.
안 의원 측은 일단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안 의원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연대라고 하면 어떤 작용이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나 선뜻 연대기구에 발을 담기도, 내치기도 쉽지 않은 내부 고민이 반영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의 제안이 중·장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내다본 ‘신(新) 야권 대연합’을 사야에 넣은 것이라는 해석 속에 안 의원의 추종으로서 이 기구에 ‘N노의’로 참여하면 존재감만 낮아지면서 기성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운 독자세력화 움직임과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연합뉴스

민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

‘3대 안정화 방안’ 발표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공동위원장 문병호·원혜영 의원)는 10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했다. 세들어 사는 집이 경제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최우선반례 상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7500만원인 최우선반례액을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억원으로, 추경용 의원은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을 임대한 다주택자의 무주택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안과 저소득 세입자에게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의 확대 시행안도 이번 안정화 방안에 담겼다.
TF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증과 폐지,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속 운영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으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반대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중장기적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기)**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사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분리단지

☎ 심속 친환경 명품주택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정로5가 버스도점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 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411㎡(124) 2층건물 99평 공시지가 2억8200 매도3억
- 할평 영업 절되는 여관과 접한 2층 주거지 땅 504평, 땅에는 생활주택적합 대출4억 매도10억5천
- 북동 고용센터 옆 상업지64평 원룸적합 1억6천
- 계림동구호빌딩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무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로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 등 적합 9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12억가능, 대출3억 매도7억8천
- 매도, 목포대학 인근 원룸 84개 허가난 땅 476평 목포대학 확장으로 사업성 좋음, 대출2억8천 매도5억6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솔로시티중·영도리도 가능,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휴게시설에 적합, 30평22세대 41평5세대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30평은 1억3900만원 41평은 1억8500, 임대도 가능
- 임대, 신항동 보건대학 부근 대로변 주택전시관 1층167㎡(50) 보증금5천에 월200선 임대, 조건은 조정가능
- 임대, 쌍촌동 (구)장군관사에 신축중인 호텔급 시설의 생활주택 10평형 기준 전세 1000에 월40선에 임대, 10월초 첫 입주 지하철 생활역에서 6분 거리
- 임대, 쌍촌동 기도건설의 주택전시관70평 PC방, 미장원, 찻집, 식당 등 다용도 사용가능 분할임대도 가능, 보증금 5천에 월200선 가능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기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유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선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대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복지 대지,전 2115㎡ 매대5천만(조정가능)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